

화협 동정

● 서울지역 안전점검 담당 구역 조정

서울지역의 중앙지부와 동부지부의 안전점검 담당구역이 4월 1일부터 일부 조정됐다. 기존의 중앙지부의 서초구와 동부지부의 종로구 및 성북구를 교환 조정함으로써 각 지부의 담당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부 : 관악·마포·서대문·영등포·용산·강서·구로·금천·동작·은평·양천·종로·성북·중구 및 부천시(14구 1시)

서울동부지부 : 강남·도봉·강북·동대문·성동·광진·강동·노원·중랑·송파·서초구 및 수원시, 성남시(11구 2시)

● '95위험관리 세미나 개최

협회는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부터 본부 1층 강당에서 공장 경영에 수반되는 각종 형태의 잠재 위험을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기법을 소개하기 위한 “위험 분석 기법의 새로운 경향”을 주제로 산업체의 안전관련 종사자, 기술사, 학계, 협회 직원 등 2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험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공대 박진우 교수의 ‘공학적인 직무 분석 및 설계’와 협회 정창기 위험관리팀장의 ‘화학공장에서 PSM 수행을 위한 위험평가 기법’이 발표됐다.

● 임원 선임

협회는 지난 1월 25일 사원총회를 열고 이병무 국회사무처 부이사관을 상무이사로 선임한데 이어, 지난 3월 23일 임기 만료되는 조

규만 상무이사를 재 선임했다.

신임 이병무 상무이사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국회사무처에 임용되어 국회 경제과학위원회 입법심의를관을 거쳐 부이사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연임된 조규만 상무이사는 부설 시험연구소의 방재시험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 사원총회 개최

협회는 지난 2월 24일 사원총회를 열고, 95회계연도 업무계획과 회계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이날 예산 심의에 앞서 보고된 ‘95업무계획에서 밝힌 95업무 목표는 화재보험 위험관리기능과 서비스 확대, 국제 수준의 위험관리 경쟁력 제고이다. 또한 위험관리 정보시스템 기반확충·선진 위험관리 기법의 개발 보급·선진 위험관리 기법의 실용화 추진·점검업무와 효율화 및 신뢰도 제고·방재 시험연구소의 국제적 위상 증대·방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특수건물 보험가입 촉진 및 관리 철저·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예산 운영을 방침으로 정하고 세계화 추세에 부응키로 했다.

● 대전지부 이전

협회 대전지부가 지난 1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대한통운B/D에서 중구 선화동 83-11 중앙투자신탁B/D 8층으로 이전했다. 전화; (042)256-2807, 257-6334 Fax: (042)252-9510 ☎

보험계 동정

● 보험 문헌 총목록집 발간

한국보험학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보험정보 자료를 집대성한 보험문헌 총목록집을 발간했다.

본 목록집은 지난 64년부터 93년말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단행본과 논문은 물론,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총망라되어 보험분야를 연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보험경제연구회 발족

보험신보사 주관으로 지난 2월 15일 롯데호텔에서 보험경제연구회가 발족됐다. 보험경제연구회는 친목단체로서 매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 및 보험업계 발전을 위한 시사성 있는 문제를 주대상으로 토론형식으로 논의하게 된다.

● 국내 보험시장 세계 6위

보험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GDP(국내총생산액) 대비 보험료 비율이 92년말기준 12.3%로서 미국의 8.7%, 일본의 8.6%, 독일의 5.7%를 앞질렀으며, 지난해는 국민 1인당 납입보험료가 70만원으로서 세계 보험시장에서 6위(생보 6위, 손보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규모도 세계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 현대사 ‘제품회수 보상 보험’개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는 제조물의 결함 발생으로 인한 기업들의 결함 제조물 회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보상하는 리콜보험을

▲방계 동정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제품회수 보상보험은 제조업체가 제조·판매한 상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인 제3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상품의 회수·검사·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 보험요율협의회 설치

보험개발원은 소비자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법조계, 의료계, 자동차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험요율협의회를 설치, 자동차보험 요율에 대한 사전 협의의 기능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 관심분야 연구회 발족

삼성화재해상보험(주)는 사원들을 중심으로 관심분야 연구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회는 사원들이 자기의 고유업무 이외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조직으로 2인 이상이 6개월 단위로 활동계획을 수립, 등록하게 되며, 연구 과제는 외국의 풍물연구, 선진제도, 사상연구, 컴퓨터 및 통신연구 등 사회 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세미나

보험개발원은 지난 2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승규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장명순 한양대 교수, 신수식 고려대교수, 양희산 전주대교수가 각각 주제발표 했다.㉓

● 소방홍보위원회 개최

내무부는 지난 2월 9일 최재홍 소방국장의 16명의 소방홍보위원들의 참석한 가운데 소방홍보위원회를 열고 95화재예방 홍보계획 및 기관간 소방홍보 협조 계획을 논의했다.

내무부, 서울소방본부,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검검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소방공제회, 한국화재·소방학회, 소방기구협동조합, 소방2000년, 소방저널, 자치소방, 소방·방재신문, 파기어 파이터, 산업안전신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홍보위원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은 물론 기관간 소방홍보의 상호협조와 정보교환 등을 하고 있다.

● 화학단지 구조대 장비 지원

일본 동경 지하철 독가스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울산 등 5개 화학단지 관할 소방서의 구조대에 화학장비가 지원된다. 내무부는 최근 화학단지에서 폭발·화재 사고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울산·여천·대산·인천·거제 등 5개 지역의 관할 소방관서 구조대에 화학복이나 가스검지기 등의 화학장비를 지원한다.

● 지진대비 소방훈련

부산진소방서는 지난 1월 20일 부산시내 변화가인 서면에 위치한 (주)태화쇼핑 건물에서 국내 처음으로 지진 내습시 발생하는 대형건물의 화재에 대비한 종합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화

재 발생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와 지진으로 각종 건물의 붕괴, 동시 다발적인 화재 등으로 소방력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 한미합동 항공기사고 대비 훈련

춘천소방서는 지난 1월 25일 춘천시 캠프페이지 항공기 유류공급소에서 춘천소방서와 미군 소방대 합동으로 항공기의 급유, 이착륙 및 운항시 응급사고에 대비한 한미합동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 사고 발생시 군의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 소형건물, 소방점검 민간에 위임

내무부는 지금까지 소방서에서 실시하여 오던 연면적 1백 80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민간업자에게 이양하는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1백 80평 미만의 건물만 민간업자가 소방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지난 2월 7일에는 다방·제과점 같은 소화기 설치 대상(연면적 33㎡규모)인 소규모 건물은 소방서의 소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방과 관련된 63개 규제업무중 14개 사항은 폐지하고 23개 사항은 규제를 축소하는 등 소방분야 행정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한바 있다.㉓